

# 대출금리 상승...1억 대출자 年이자 50만원 ↑

### 코픽스 상승에 시중은행 일제히 올려...대출심사 깎깎 중·저 신용자들 대부분 폐·저축은행 몰려 대출 양극화

시장금리 상승과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오르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금융권의 대출심사가 깎깎해지고 고신용자에게만 돈을 빌려주면서 갈 곳 없는 중·저신용자들이 금리가 높은 대부분 폐업체와 저축은행으로 몰리는 대출 양극화도 가속화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17일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와 연동하는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일제히 올렸다. KB국민은행은 코픽스 인상폭보다 높은 0.07%포인트를 올렸고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은 코픽스 인상폭만큼 올렸다.

이에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국민

은행 3.11~4.31% ▲신한은행 2.87~4.18% ▲KEB하나은행 3.07~4.26% ▲우리은행 2.92~3.92% ▲농협은행 2.73~4.33% 등이다.

이번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은 코픽스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는 전날 9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52%로 전달보다 0.05%포인트 올랐다고 공시했다.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대부분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와 연동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해 여름 이후 꾸준히 상승해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월별 신규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지난해 6월 2.77%였으나 지난 8월 3.28%로 1년여만에 0.51%포인트 상승했다.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도 지난해 8월 2.58~3.89%였으나 이날 3.11~4.31%로 0.42~0.53%포인트 올랐다.

하지만 문제는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오르면 대출받은 사람은 바로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대출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1억원을 빌린 사람은 연간 이자 부담이 50만원 더 늘어난다. 매달 4만원 이상의 이자를 더 내야 하는 셈이다.

또 앞으로 대출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보여 이자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준비하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버티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시장금리가 덩달아 오르면서 코픽스 연동 변동금리는 물론 고정금리도 상승하게 된다. 이미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 고

정금리도 올랐다. 이날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3.41~4.61%로 전달말 3.29~4.49%보다 0.12%포인트 상승했다.

고정금리가 오르면 기존 대출자는 영향이 없지만 앞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 또 기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갈아타기도 어려워진다. 치솟는 금리에 돈줄이 막혀 주택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대출 규제와 같은 미시적인 대책은 가계부채를 잡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중신용자를 금융소외계층으로 내모는 풍선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며 “기준금리 조정 등을 통한 거시적인 방법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484.37 (+4.32)
- ↑ 금리 (국고채 3년) 1.95% (+0.02)
- ↑ 코스닥 670.51 (+11.10)
- ↑ 환율 (USD) 1132.50원 (+4.70)

## 광주 아파트 분양시장 뜨겁다

### 울 11개단지 청약미달 '0'...농성 SK뷰 센트럴 217대 1

올해 들어 광주지역 아파트 청약에서 미달 사태가 단 한 건도 없는 등 아파트 분양시장이 비교적 활황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주택청약서비스 사이트 '아파트투유'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광주지역에 총 11개 단지의 아파트가 분양소외계층으로 내모는 풍선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며 “기준금리 조정 등을 통한 거시적인 방법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 가구 수 10가구 이상을 기준으로 청약률이 가장 높은 단지는 지난 6월 청약한 9월 기준 광주 지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단위면적(m<sup>2</sup>)당 평균 분양가는 294만5000원(3.3㎡ 당 971만8500원)으로 전월 290만3000원에 비해 4만2000원(1.46%) 올랐다. /김대성기자bigkim@

반면 청약률이 2대 1 미만인 단지는 동림동 대광로제비앙 100㎡(B타입) 1.43대 1, 송정 재건축 중흥 S-클래스 센트럴 106㎡ 1.93대 1, 102㎡ 1.71대 1 등이었다.

이처럼 광주지역 아파트 청약에서 미달 사태가 없는 것은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그만큼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일부 아파트 단지의 청약률이 높은 것은 실수요자뿐 아니라 아파트 전매 등을 고려한 일부 투기세력이 분양시장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9월 기준 광주 지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단위면적(m<sup>2</sup>)당 평균 분양가는 294만5000원(3.3㎡ 당 971만8500원)으로 전월 290만3000원에 비해 4만2000원(1.46%) 올랐다. /김대성기자bigkim@

## 한전, 미얀마서 366만 달러 수출상담 전력 산업전 참가...기자재 판로 개척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미얀마 양곤 국제 전시장에서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과 공동으로 '2017 미얀마 전기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전'에 참가, 우리나라 우수 전력기자재의 판로를 개척하는 데 앞장섰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미얀마 전기전력 산업전은 미얀마 최대의 종합전기 전시회로, 금년에는 16개국 130개 기업이 참가하였으며, 해외 바이어 등 3만5000명이 관람했다.

한전은 이번 전시회에서 동남석유공업(주) 등 13개 중소기업의 에너지 기술 및 제품을 미얀마 시장에 전시하고 총 366만 달러의 수출 상담실적을 올렸다.

한전은 KEPCO 파빌리온(Pavilion)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의 제품을 전시하고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을 실시했으며, 전시회에 참가한 중소기업들의 부스 입차비, 물품운송비, 통역비 등 소요 비용을 지원하고 효과적인 현지 판로 개척을 위해 맞춤형 전문 마케팅을 실시했다.



미얀마 양곤국제전시장에 설치된 부스에서 한전 직원이 상담을 하고 있다.

〈한전 제공〉

특히 한전은 이번 미얀마 산업전에서 수출상담한 해외 바이어들을 11월 개최하는 빛가람 전력기술 엑스포(BIXPO

2017)에 초청하는 등 지속적인 수출 교류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올 말까지 알제리·모로코, 이란 지역을 대상으로 늘

은 브랜드 인지도를 활용해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최재호기자 lion@

## 전남 쌀 생산 감소

### 호남통계청...봄 가뭄·여름 폭우 영향 전년비 3.2% ↓

올해 전남지역 쌀 생산량이 가뭄과 일조량 부족 등 기상여건 악화로 전년 대비 3.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17일 호남지역통계청이 2017년 전남지역 논벼와 밭벼의 생산량을 표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쌀 재배면적은 지난해 16만6444ha에서 올해 16만1445ha로 3.0% 감소했고 생산량도 82만t으로 3.2%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10a당 예상생산량은 508kg으로 전년

510kg 대비 0.4% 감소했다.5~6월 모내기 시기의 극심한 가뭄 등 기상여건 악화로 이삭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낱알이 형성되는 7~8월에 잦은 강수와 일조시간 감소로 낱알수가 줄어들어 10a당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전국 시·도별 예상생산량은 전남이 82만t으로 가장 많고 이어 충남 72만 2000t, 전북 64만8000t순으로 나타났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본 자연장은 아름기도회에서 운영하는 회원들을 위한 종교시설입니다.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례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례문화입니다.

##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6-8(2층)

☎ (062) 433-9191